



문법요소

개념 1 높임표현

개념 :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듣는 이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을 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

실현 : 높임법은 문장 종결 표현, 선어말 어미 ‘-(으)시’, 조사 ‘께, 께서, 특수 어휘’ 계시다, 드리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

종류 :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1) 주체 높임법

개념 : 말하는 이보다 서술어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위자일 때 사용

실현 :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
- 부수적으로 주격조사 ‘이/가’ 대신 ‘께서’ 가 쓰이기도 하고
- 주어 명사에 접사 ‘-님’ 이 덧붙이기도 한다.
- 그리고 몇 개의 특수한 어휘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로 실현

저기 아버지가 오신다.
저기 아버지께서 오신다.
저기 아버님께서 오신다.

- 직접 높임 : 말하는 이가 주어를 직접 높일 때 사용

간접 높임 :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서만 실현, 즉 특수 어휘 등은 사용불가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십니다.
곧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X)
곧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시입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 계세요. (X) 아버지 무슨 고민 있으세요. (O)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계시다}

↳ ‘있으십니다’의 주어인 ‘말씀’은 말하는 이가 높이는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2) 객체 높임법

개념 : 목적어나 부사어,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실현 :

└ 특수 어휘, 그 중 특수한 동사를 사용한다. (여쭙다, 모시다, 뵙다, 드리다)

└ 객체 높임법에서는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나는 아버지를 <u>모시고</u> 병원으로 갔다.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u>드렸다</u> .

(3) 상대 높임법

-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국어 높임법 중 가장 발달
- 종결 표현으로 실현
 - 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냄
 -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 친밀감을 나타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 식 체	하십시오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현 가려므나	가자	가는구나
비 격 식 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반말)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이 얘기를 어째서 계속하여야 하는지 모르겠구려.	(하오체)
내가 너무 흥분하였던 것 같네.	(하계체)
이 자리에 앉아라	(해라체)



문 법 요 소

문 법 요 소

개 념 2 시간표현

시제 :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 표현

기준 ▮ 발화시 :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

▮ 사건시 :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종류 : 발화시(發話時)와 사건시(事件時)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시제는 대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1) 과거 시제

개념 : 사건시(事件時)가 발화시(發話時)보다 앞서 있는 시제

실현 : 대표적인 방법은 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을 사용.

② ‘-았었-/었었-’ 도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 발화시(發話時)보다 훨씬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

③ ‘어제, 옛날’ 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제 그 영화를 보았다.

우리들이 처음 만난 것은 눈발 속이었지.

그 해 겨울밤은 정말 포근하게 느껴졌었지

-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 때의 일이나 경험을 돌이켜 회상할 때에는 ‘-더-’를 사용한다.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다.

-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해 실현 : ‘-(으)ㄴ’과 ‘-던’

아까 네가 먹은 우유는 유통 기한을 넘긴 것이었는데.

그렇게 예쁘던 순희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니.

당시 학생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

(2) 현재 시제

개념 : 발화시(發話時)와 사건시(事件時)가 일치하는 시제

실현 :

- ①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과 관형사형어미 ‘-는’ 이 쓰이고,
- ②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이 쓰이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 ③ 또 ‘지금/오늘’ 과 같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 축구를 하는 학생들
우리 아기 잘도 자는구나. / 잠을 자는 아기
영희는 참 아름답다. / 참 아름다운 영희
철수는 학생이다. / 학생인 철수

(3) 미래 시제

개념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실현 : 미래 시제 표현으로는 ① 선어말 어미 ‘-겠-’ 이 대표적이다.

- ② ‘-(으)리-’ 는 ‘-(으)리다, -(으)리라, -(으)리까, -(으)리니-’ 등과 같이 한정된 표현에서 사용되며, 예스러운 의미를 나타낸다.
- ③ ‘-겠-’ 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도 쓰인다.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전화하리다.
그 일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철수는 벌써 도착했겠습니다.
그 까짓 것 나도 하겠다.

-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해 실현 : ‘-(으)ㄴ’이 사용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으)ㄴ 것이’도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겠-’과 의미 내용이 비슷하다. 또 부사어는 ‘내일’ 등이 쓰인다.

그는 내일 올 거야.
몇 시간이면 떠날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서 독자는 다음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계획대로 했으면 그 일을 이루어 냈을 것입니다.



문 법 요 소

(4) 동작상

개념 :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

실현 : 주로 보조 용언 일부가 동작상을 보여 준다

가) 진행상 - ‘-고 있다, -어 가다(보조 용언)’

진행상 :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빨래가 다 말라 간다.

나) 완료상 - ‘-아 있다, -어 버리다(보조 용언)’

완료상 : 자장면을 다 먹어 버렸다.
 지현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다)중의성

꽃이 피어 있다. - 완료된 상태의 지속
 밥을 다 먹었다. - 동작이 완료됨
 형은 근사한 넥타이를 매고 있다. - 진행과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짐

• 상대적 시제

- ㄱ. 그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한다.
- ㄴ. 그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 ㄷ. 그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하겠지.

ㄴ ‘기다린다’가 나타내는 시제를 절대 시제로 해석하면 ㄱ은 현재, ㄴ은 과거, ㄷ은 미래가 된다. 그런데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사건시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모두 다 현재가 된다. 이처럼 상대 시제를 활용하면 관형절이나 인용절 같은 안긴문장, 그리고 일부 이어진문장의 앞절에 나오는 하나의 시제 형태소를 각기 다른 시제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출제 Point

.....



문 법 요 소

Step 1

1. EBSi <보기>의 (가)에 제시할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 혹은 보조사에 의해 실현되며, 6개의 등급이 있다. 상대 높임 표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	

그런데 한 청자에 대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쓰는 일이 흔하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가)

- ①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서는 모두 꺼냈어요? 수업 시작할까?
- ②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 식사는 했어? 어서 자리에 와서 앉게.
- ③ (아내가 남편에게) 빨리 준비해서 나갑시다. 약속에 늦겠어요.
- ④ (엄마가 아들에게) 너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빨리 자.
- ⑤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2. EBSi <보기>의 ㄱ~ㅁ을 높임법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에 낮잠을 잔다.
 ㄴ. 손님, 불편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ㄷ. 손님, 이 상품의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ㄹ. 선생님께 물어볼 게 있어요.
 ㅁ. 제가 과장님을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보기 어렵네요.

- ① ㄱ의 ‘잔다’를 주체 높임법에 맞게 ‘주무신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② ㄴ의 ‘계시면’을 주체 높임법에 맞게 ‘있으시면’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③ ㄷ의 ‘높습니다’를 주체 높임법에 맞게 ‘높으십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④ ㄹ의 ‘물어볼’을 객체 높임법에 맞게 ‘여쭙어 볼’로 수정해야 한다.
- ⑤ ㅁ의 ‘보기’를 객체 높임법에 맞게 ‘뵈기’로 수정해야 한다.

3. EBSi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저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몇 개의 예문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ㄱ. 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 ㄴ. 그 귀엽던 아이가 어느새 늙름한 청소년이 되었다.
- ㄷ. 내가 먹던 비빔밥은 어머니께서 만드신 것이다.
- ㄹ. 어렸을 때 나는 심하게 아팠었다.
- ㅁ. 너 지난주에 보니까 어딘가 바쁘게 가더라.

(가)

- ① ㄱ, ㄴ을 통해 선어말 어미 ‘-았-’과 ‘-었-’이 과거 시제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ㄱ, ㅁ을 통해 ‘어제’, ‘지난주에’와 같은 시간 부사어도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ㄴ, ㄷ을 통해 형용사와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ㄹ을 통해 ‘-았었다’는 아팠다는 과거 사태에 대한 단절감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ㅁ을 통해 ‘-더-’는 과거에 직접 관찰한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EBSi <보기>의 (가)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한국어의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진행상은 어떤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완료상은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민수가 양말을 신고 있다.’와 같은 문장은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양말을 신는 행위를 하는 중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민수가 양말을 신은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학생: 그러면 (가) 와 같은 문장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 ① 사내가 말을 타고 있다.
- ② 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다.
- ③ 용재가 빵을 먹고 있다.
- ④ 세희가 책을 읽고 있다.
- ⑤ 동생이 세수를 하고 있다.



문 법 요 소

[5~6] EBS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국어에서의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은 현대 국어의 방식과는 달랐다. 15세기 국어에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였다.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는 ‘-습-’인데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종류에 따라 ‘-습-, -줍-, -술-, -술-, -줄-’으로 실현되었다. ‘-습-, -습-, -줍-’은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어간의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었다. ‘-습-’은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ㅎ’ 뒤에서 사용되었다. ‘-줍-’은 어간의 끝소리가 ‘ㄷ, ㅌ, ㄷ, ㅌ’일 때 사용되었고, ‘-습-’은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유성 자음 ‘ㄴ, ㄹ, ㄹ’일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습-, -습-, -줍-’이 각각 ‘-술-, -술-, -줄-’으로 실현되었다.

- (가) 내 쫄 勝鬘(승만)이 聰明(충명)하니 부터웃 보스븍면 당다이 得道(득도)를 썰리 흐리니
내 딸 승만이 충명하니 부처를 뵈면 분명히 득도를 빨리 하리니
- (나) 내 아래브터 부텃기 이런 마를 못 듣즈븍며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었으며
- (다) 無量壽佛(무량수불) 보스븍 사랏문
무량수불을 뵈 사람은

(가)에서는 ‘보스븍면’에는 용언의 어간 ‘보-’와 연결 어미 ‘-으면’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말의 화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터’가 자기 딸 ‘승만’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터’를 높인 것이다. 그리고 (나)에서는 화자인 ‘나’가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터’가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즈븍며’에 ‘-줄-’이 나타났다.

객체 높임법은 관형사형에서도 실현되었는데 (다)에서 관형사형 ‘보스븍’은 바로 뒤의 명사인 ‘사랏문’보다 목적어 ‘무량수불’이 높기 때문에 ‘-술-’을 사용한 것이다.

5. 이 자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 ②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③ (가)의 ‘보스븍면’과 (다)의 ‘보스븍’은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나)의 ‘듣즈븍머’는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 없다.
- ④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용언의 관형사형 이외의 활용형에서도 실현되었다.
- 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은 결합하는 어간의 끝소리가 달라지면 ‘-슬-’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6.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현대어 풀이
①	듣줍고(듣- + -줍- + -고)	듣고
②	춥습고(춥- + -습- + -고)	차고
③	얻즈빠(얻- + -즐- + -아)	얻어
④	돕스븍니(돕- + -습- + -으니)	도우니
⑤	막습거늘(막- + -습- + -거늘)	막거늘



문 법 요 소

문 법 요 소

개 념 3 사동 · 피동

1. 사동 표현

개념 : 문장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뉜다.

- ┌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 하고,
- └ 주어가 남에게 동작으로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철수가 옷을 입었다. - 주동사 / 어머니가 철수에게 옷을 입혔다. - 사동사

-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 ┌ 주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 → 사동문의 목적어,
- ┌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 → 사동문의 부사어
- ┌ 주동문의 목적어 → 사동문의 목적어
- ┌ 사동문의 주어인 사동주는 새로 도입된다.
- └ 주동문의 주어가 변한 사동문의 부사어에는 주로 '에, 에게'가 붙으며, '-로 하여금'이 쓰이기도 한다.

길이 넓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물이 유리잔에 가득 찼다.	친구가 물을 유리잔에 가득 채웠다.
아이가 옷을 입는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가) 파생적 사동문 : 문장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뉜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으로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숙다 : 숙이다 익다 : 익히다 알다 : 알리다 말다 : 말기다
오다 : *오이다 가다 : *가이다 서다 : *세다/*세이다/세우다

나) 통사적 사동문(긴 사동문) : 연결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붙은 ‘-게 하다’와 ‘-시키다’ 붙어 실현된다.

차를 정지시켰다. 차를 정지하게 했다.

• 사동법에는 피동법과 달리 사동 접미사와 ‘-게 하다’를 함께 붙이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 사동 표현으로 만든 것을 사동의 사동을 시키는 결과가 되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띤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사람들이 길을 넓히게 한다.

• ‘시키다’는 어휘적 사동의 예로 쓰이기도 하고 접미사로도 보아 파생적 사동으로도 설정한다.

✓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 대개 단형 표현은 직접적, 장형 표현은 간접적 표현이라고 한다. 사동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반 원칙은 지켜지지만 사동법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난다. 즉 단형 사동문은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단형 사동문과 장형 사동문의 의미는 현재로서는 용언과 그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의 의미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직접 옷을 입혔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해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었다.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 *언니가 아이에게 직접 옷을 입혔다.
⇒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었다.



2. 피동 표현

개념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 피동(被動)

↳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 - 능동(能動)

- 동작주(행위주)에 따라 능동과 피동으로 구분한다.

고양이가 쥐를 몰았다. - '몰다'는 능동사 ☞ 능동문
 쥐가 고양이에게 몰렸다. - '몰리다'는 피동사 ☞ 피동문

실현 :

-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이 때 부사어는 유정성 여부에 따라 ‘에게’가 붙거나 ‘에’가 붙고, 공통적으로 ‘에 의해서’가 붙기도 한다.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ㄱ 능동문의 주어 → 피동문의 부사어
 ↳ 능동문의 목적어 → 피동문의 주어
- * 피동문 부사어는 유정성에 따라 ‘에게’가 붙거나 ‘에’가 붙고 공통적으로 ‘에 의해서’가 붙기도 한다.
- 국어에서는 피동사가 있는 능동사보다 피동사가 없는 능동사가 훨씬 많다.

피동사가 만들어진 경우 - 보다 : 보이다. 잡다 : 잡히다, 듣다 : 들리다.
 피동사가 만들어 질 수 없는 경우 - 얻다 : *얻히다. 만나다 : *만나히다

가) 파생적 피동(짧은 피동) :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실현된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히’

나) 통사적 피동(긴 피동) : ‘-어지다’ (‘-어지다’의 경우에는 ‘지다’를 보조 용언으로 보면서, 다른 보조 용언들과 달리 ‘-어지다’를 붙여서 써 띄어쓰기 규범에서 예외적 사례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되다’, ‘-게 되다’로 실현

- 이것은 저것과 관련된다. - ‘-되다’
-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 ‘-어지다’
-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 ‘-어지다’
-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 ‘-게 되다’

• 피동문 부사어는 유정성에 따라 ‘에게’가 붙거나 ‘에’가 붙고 공통적으로 ‘에 의해서’가 붙기도 한다.

• 탈행동적 피동 : 동작주를 상정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동작주로 분명히 의식하지 않아 탈행동적으로 해석되어 동작주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분명한 동작주(動作主)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

날씨가 풀렸다. - (하늘이) 날씨를 풀었고
 옷이 못에 걸렸다. - (부주의한 내 동작이) 옷을 못에 걸었고
 마음이 진정되었다. - (어떤 작용 때문에) 마음을 진정하였고
 제가 가게 되었어요. -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가) 나를 가게 하였고
 저절로 먹게 되었어요. - (미지의 생리 작용이) 나를 먹게 하였고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 (미지의 원인이) 그를 만나게 하였다.



문 법 요 소

문 법 요 소

개 념 4 부정표현

개념 : 부정문이란 긍정 표현에 대하여 언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법 기능을 말한다.

실현 : 국어에서는 부정 부사 ‘안, 못’ 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 를 사용하여 부정 표현을 만들 수 있다. (명령, 청유문에서는 ‘말다’ 가 쓰임 ‘마/마라’ , ‘말자’)

가) 짧은 부정문 : 긍정문을 그대로 둔 채 ‘안(아니), 못’ 을 서술어의 앞에 첨가한 부정문

① 의지 부정 : 안 ㄹ 나는 그를 안 만났다.

② 능력 부정 : 못 ㄹ 나는 그를 못 만났다.

나) 긴 부정문 : ‘-지 않다’ , ‘-지 못하다’ 가 쓰인 문장

① 의지 부정 : 아니하다 ㄹ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② 능력 부정 : 못하다 ㄹ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안 만났다. / 만나지 않았다.

그를 만나지 마라. / *못 해라. / *아니 해라.

그를 만나지 말자. / *못 하자. / *아니 하자.

•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다.

• 이러한 중의성은 단어 중 어느 하나에 강세를 주어 구별하거나, 보조사 ‘는, 도, 만’ 을 넣어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문맥을 통해서도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철수[✓]는 책을 안 읽었다. 철수가 책[✓]은 안 읽었다. 철수가 책을 읽[✓]지[✓]는 않았다.

다) 부정 표현의 특이성

① ‘모르다, 없다’는 특수 부정어로 짧은 부정 표현은 불가능하고, 긴 부정 표현만 가능하다. 이는 부정하는 의미가 문장 전체이기 때문이다.

*철수가 명희를 안 몰랐다.

모르지 않다, 없지 않다 : *안 모르다, *안 없다

② 부정 표현 중에는 짧은 부정문의 형태가 관용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도 많다.

그런 말을 하면 못써요. (바르지 않다)

그런 말을 하면 쓰지 못해요다.

출제 Point



Step 1

7. EBS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피동사 파생 접미사로 사용될 때는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하지만 사동사 파생 접미사로 사용될 때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둘 사이에는 나날이 신뢰가 쌓였다. ㉠
- 그는 조금씩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혔다. ㉡
- 집주인은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높였다. ㉢
- 그는 돈을 집에다 두고 그냥 놀렀다. ㉣
- 안방의 벽지가 인부들에게 뜯겼다. ㉤

- ① ㉠: 타동사 ‘쌓다’에 피동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피동사 ‘쌓이다’를 파생했군.
- ② ㉡: 형용사 ‘좁다’에 사동사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사동사 ‘좁히다’를 파생했군.
- ③ ㉢: 형용사 ‘높다’에 사동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사동사 ‘높이다’를 파생했군.
- ④ ㉣: 자동사 ‘놀다’에 사동사 파생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사동사 ‘놀리다’를 파생했군.
- ⑤ ㉤: 타동사 ‘뜯다’에 사동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사동사 ‘뜯기다’를 파생했군.

8. EBS <보기> 를 바탕으로 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동문	사동문
길이 넓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아기가 잔다.	엄마가 아기를 재운다.
아기가 우유를 먹는다.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
아이가 우유를 마신다.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마시게 한다.
달리던 차가 정지하였다.	경찰이 달리던 차를 정지시켰다.

- ①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는구나.
- ②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바뀌는구나.
- ③ 형용사와 자동사는 사동사로 바꿀 수 있지만, 타동사는 사동사로 바꿀 수 없구나.
- ④ ‘먹다’는 사동사로 사동문을 만들 수 있고, ‘마시다’는 ‘-게 하다’를 통해 사동문을 만들 수 있구나.
- ⑤ ‘-하다’로 끝나는 동사를 사동 표현으로 만들 때에는 ‘-시키다’를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9. EBS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주어가 제 힘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행동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별이 나를 쏘았다.’는 능동문이고, ‘내가 별에게 쏘였다.’는 이에 대응하는 피동문이다. 그런데 피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피동문이 있고, 능동문 중에도 ㉡대응하는 피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능동문이 있다.

	㉠	㉡
①	더위가 한풀 꺾였다.	희태가 잠자리를 잡았다.
②	차물쇠가 누군가에게 뜯겼다.	그는 그쪽 지리를 잘 알았다.
③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었다.
④	내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바둑을 배웠다.
⑤	아이가 모기에게 잔뜩 물렸다.	건우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10. EBS <보기> 를 바탕으로 부정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아이가 밥을 {먹는다 → 안 먹는다, 먹지 않는다 / 못 먹는다, 먹지 못한다}.
 ㉡ 여름인데 날씨가 덥지 않다.
 ㉢ 비가 와서 여행을 가지 못했다.
 ㉣ 가지 {마십시오, 맙시다 / *않으십시오, *않읍시다, *못하십시오, *못합시다}.
 ㉤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 *나는 못 행복하다.
 *는 비문법적임을 나타내는 표시임

- ① ㉠을 보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을 의미하는 용언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② ㉠, ㉡을 보니, ‘않다’는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기도 하고, 특정한 상태를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③ ㉢을 보니, ‘-지 못하다’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 그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④ ㉣을 보니,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않다’나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⑤ ㉤을 보니,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못’과 함께 사용하면 부자연스럽구나.



문 법 요 소

Step 2

11.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높임 표현을 체계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 표현은 주체, 상대(청자), 객체의 세 요소를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세 요소를 높이는 경우를 ‘+’로 표시하고 높이지 않는 경우를 ‘-’로 표시할 때, “철수는 나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ㄱ. 형은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 ㄴ. 형은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 ㄷ. 할머니는 형에게 선물을 주셨다.
- ㄹ. 아버지는 형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 ㅁ. 아버지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셨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①	ㄱ	-	-	+
②	ㄴ	-	+	-
③	ㄷ	+	+	-
④	ㄹ	+	-	-
⑤	ㅁ	-	+	+

12. <보기>를 바탕으로 ‘높임법’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할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ㄴ.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ㄷ. 내가 너무 흥분하였던 것 같네. /
 제가 너무 흥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 ① ㄱ은 궁극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군.
 ② ㄴ은 ㄱ과는 달리 행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는군.
 ③ ㄷ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군.
 ④ ㄱ과 ㄴ은 ‘-시-’라는 어미에 의해 높임의 표현이 만들어지는군.
 ⑤ ㄷ은 어휘와 어미에 의해 높임의 표현이 구체화되는군.

13. <보기1>을 참조하여 <보기2>를 높임의 대상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 주체 높임법 :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며, 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 접사 ‘-님’, 몇 개의 특수한 어휘로 실현됨.
 ❖ 상대 높임법 : 말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며, 종결 표현으로 실현됨.
 ❖ 객체 높임법 :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며, 특수한 동사나 부사격 조사 ‘께’로 실현됨.

- ㉠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 교장 선생님께서 곧 오신답니다.
 ㉣ 외할머니께서 방금 오셨다.

분류	주체를 높임	상대를 높임	객체를 높임	주체와 상대를 동시에 높임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 법 요 소

1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학습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1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주로 특수 어휘, 그 중에서도 특수한 동사를 사용한다. 객체 높임법에는 공손의 표시의 선어말 어미, 높임의 의미를 지닌 조사도 활용한다.

• ㉡ • 2

- ㄱ. 제자로서 스승에게 여쭙는 글의 내용이 좀 주제 넘는다는 느낌이 든다.
- ㄴ. 친구분께서 내려가시는 길에 잠시 할아버님을 뵙자고 하십니다.
- ㄷ. 기차 시간이 좀 남았기에 그 동안의 안부라도 여쭙고자 왔습니다.
- ㄹ. 제가 어른을 뵈옵기는 오늘 새벽이 처음이외다.

- ① ㄱ은 ‘여쭙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객체인 스승을 높이고 있다.
- ② ㄱ은 ‘스승에게’보다는 ‘스승께’라고 하면 더 적절한 높임이 된다.
- ③ ㄴ은 객체인 ‘친구분’을 ‘께서’와 동사 ‘뵙다’를 같이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 ④ ㄷ은 대상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쭙다’를 사용하여 그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⑤ ㄹ은 높임 어휘인 ‘뵙다’와 공손 표지인 ‘-옵-’을 통하여 ‘어른’을 더욱 높이고 있다.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그분들께서 여행을 떠나려 하십니다.
- ㉡ 영호 씨, 이 책을 순희에게 갖다 주세요.
- ㉢ 우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
- ㉣ 고등학교 졸업반 때 담임 선생님을 뵙고 싶어.

- ① ㉠은 ‘-시-’뿐만 아니라 조사를 활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은 격식체이고 ㉡, ㉢, ㉣은 모두 비격식체이다.
- ③ ㉡에서 ‘순희’를 ‘할머니’로 바꾸면 서술어도 특수 어휘로 바뀌어야 한다.
- ④ ㉢, ㉣은 모두 특수 어휘를 써서 문장의 객체를 높이고 있다.
- ⑤ ㉠~㉣ 모두 종결 어미에 의해 상대 높임 표현이 실현되어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국어의 높임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체 높임의 경우 선어말 어미나, 주격 조사, 특수 어휘에 의해, 상대 높임의 경우 종결 어미에 의해, 객체 높임의 경우 특수 어휘나 부사격 조사에 의해 실현된다.

동생 : 형, 이번에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서울로 ㉢오시는데 우리가 뭐 준비할 거 없을까? ㉣아버지께 한번 ㉤여쭙어 볼까?

형 : 그보다 우리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건 ㉧어때?

동생 : 멋진 계획인 것 ㉨같아. 역시 형이 최고야.

- ① ㉠, ㉢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② ㉡의 '께서', ㉢의 '-시-'는 모두 높이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③ ㉡의 '께서'는 주체를 높이고, ㉥의 '께'는 객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 ④ ㉥의 '께'와 ㉥은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높임의 대상은 동일하다.
- ⑤ ㉧과 ㉨은 청자를 높이는 정도가 동일하다.

17.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건시(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가 발화시(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사용할 것.
-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할 것.

- ① 나는 집에서 지금 밥을 먹는다.
- ② 그는 어제 숙제를 하고 있었다.
- ③ 그녀는 충치를 다 뽑아 버렸다.
- ④ 나는 내일 빵을 먹어 버리겠다.
- ⑤ 그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18.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1

선어말 어미 ‘-겠-’은 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쓰인다. 미래 시제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주어가 1인칭(의문문에서는 2인칭)일 때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 또한 ‘-겠-’에 의한 미래 시제는 어떤 일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나 추정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추측이나 추정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주어의 인칭에 제약이 없고 또한 시제가 반드시 미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 • 2

- ㄱ. 이번에는 내가 반장이 되겠다.
- ㄴ. 이번에는 네가 반장이 되겠다.
- ㄷ. 이번에는 내가 반장이 되겠니?
- ㄹ. 이번에는 네가 반장이 되겠니?
- ㅁ. 작년에는 네가 인기 있었겠어.

- ① ㄱ은 주어가 1인칭인 평서문이므로 ‘-겠-’이 의지, 의도의 뜻으로만 해석된다.
- ② ㄴ은 주어가 1인칭인 평서문이 아니므로 ‘-겠-’이 의지, 의도의 뜻으로만 해석된다.
- ③ ㄷ은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 아니므로 ‘-겠-’이 추측, 추정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④ ㄹ은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므로 ‘-겠-’이 추측, 추정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⑤ ㅁ은 미래 시제가 아니므로 ‘-겠-’이 의지, 의도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9.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 ㄱ~ㅁ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현재를 기준 삼아 어떤 행위나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 끝 서술어의 행위나 상태가 성립하는 시간을 기준 삼아 시제를 해석할 수도 있다.

- ㄱ. 들뜬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상에 젖었다.
 ㄴ. 동생이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ㄷ. 그는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갑게 맞는다.
 ㄹ. 나는 어제 숙제하는 동생을 도와주었다.
 ㅁ. 언니가 붉은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 ① ㄱ : ‘아름다운’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과거이고 ‘젖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과거이다.
 ② ㄴ : ‘보면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이나 ‘있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이다.
 ③ ㄷ : ‘웃는’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이나 ‘맞는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이다.
 ④ ㄹ : ‘숙제하는’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과거이고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과거이다.
 ⑤ ㅁ : ‘붉은’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이나 ‘바라본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이다.

20. <보기>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우리는 내일 가족 여행을 간다.
 ㄴ.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번 농사는 다 지었다.
 ㄷ. 철수는 이미 밥을 먹었겠구나.
 ㄹ. 지금은 손님이 없지만 작년만 해도 이 식당엔 손님들이 장사진을 찼었다.
 ㅁ. 나는 어제 이 가게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 ① ㄱ :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에도 쓰이는군.
 ② ㄴ : ‘-었-’은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③ ㄷ : ‘-었-’은 ‘-겠-’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거의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겠군.
 ④ ㄹ : ‘찼었다’는 ‘치었었다’의 줄임말로 ‘-었었-’은 작년의 일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군.
 ⑤ ㅁ : 사람이 가게로 들어가는 행위와 ‘나’가 그것을 본 행위는 모두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것이군.



문 법 요 소

21. 다음 <보기>는 ‘-고 있-’의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사례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고 있-’이 언제나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철수는 모자를 쓰고 있다.’의 ‘-고 있-’은 상황에 따라서 모자를 쓰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모자를 쓴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철수는 영희를 믿고 있다’에서는 ‘-고 있-’이 영희를 믿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고보다는 믿고 있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철수는 공부하고 있다.’에서 ‘-고 있-’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
①	눈을 감고 있다.	바닥에 엎드리고 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②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선물을 들고 있다.	새 집을 짓고 있다.
③	소매를 걷고 있다.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	브로치를 달고 있다.
④	집에 가고 있다.	운동화를 신고 있다.	책을 읽고 있다.
⑤	외투를 입고 있다.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산길을 걷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말의 피동문에는 접사를 활용한 피동문과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이 있다. 피동문을 만들 때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된다.

학습 자료			
	A: 능동문	B: 접사를 활용한 피동문	C: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
㉠	철수가 선생님의 오해를 풀었다.	선생님의 오해가 철수에 의해 풀렸다.	선생님의 오해가 철수에 의해 풀어졌다.
㉡	순희가 철이를 밀었다.	철이가 순희에게 밀렸다.	해당 사례 없음.
㉢	철수가 칭찬을 들었다.	해당 사례 없음.	해당 사례 없음.
㉣	해당 사례 없음.	열매가 열린다.	해당 사례 없음.

- ① ㉠으로 보아, 접사를 활용한 피동문과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도 있군.
- ② ㉠, ㉡으로 보아, 피동문은 능동문과 달리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군.
- ③ ㉠, ㉡으로 보아,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모두 ‘에게’의 형태로 바뀌는군.
- ④ ㉢으로 보아, 능동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군.
- ⑤ ㉣으로 보아,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군.



문 법 요 소

23.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부정 표현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분들이 잘 돌봐주신 덕분에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나는 걱정 안 할 테니 너도 걱정 할 필요 없다. 시험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라/*안 해라}.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 별로 {*어려운/어렵지 않은} 문제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 두어야 한다.

*는 비문법적 표현을 나타낸 것

- ① ‘안’부정은 의지 부정으로만 쓰이는군.
- ② 명령문은 짧은 부정문으로 쓰지 못하는군.
- ③ ‘별로’는 부정 표현과만 어울려야 하는군.
- ④ ‘있다’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부정하는군.
- ⑤ 긴 부정문에서 ‘않다’의 품사는 앞말의 품사와 동일하군.

24. <보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운동장이 넓지 않다.
 (나) 나는 그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다) 나는 무거운 것을 못 든다.
 (라)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
 (마) 나는 어제 운동하지 않았다. / *나는 어제 안 운동했다.
 (바)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맙시다.
 *는 비문법적인 표현을 나타낸 것임.

- ① (가)는 ‘건물이 크지 않다.’와 마찬가지로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 ② (나)는 의지 부정, (다)는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 ③ (라)의 ‘못하다’는 화자의 기대 수준이 낮았음을 나타낸다.
- ④ (마)를 통해 짧은 부정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바)는 청유문의 경우 ‘-지 말다’형태의 긴 부정문이 쓰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2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1

국어의 부정 표현은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과 긴 부정으로 나뉘고, 의미에 따라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으로 나뉜다.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에,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에 쓰인다. 한편 ‘말다’ 부정문은 ‘안’부 정문과 ‘못’ 부정문이 사용되지 못하는 명령형과 청유형에서 사용된다. 일부 용언에서는 부정 표현에 제약이 있다.

• ㉠ • 2

- ㄱ.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못 } 갔다.
 ㄴ. 영희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못했다 }.
 ㄷ. 이번에는 수영장에 { *안 가자/*못 가자/가지 말자 }.
 ㄹ. 저도 그 사실을 { *안 모릅니다/모르지 않습니다 }.
 ㅁ. 요즘은 가정 형편이 {안 좋다/*못 좋다/좋지 않다/좋지 못하다 }.
 ㅂ. 그 길이 {안 좁다/*못 좁다/좁지 않다/*좁지 못하다 }.
 *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임.

- ① ㄱ은 짧은 부정인 반면, ㄴ은 긴 부정이다.
 ② ㄱ의 ‘안’과 ㄴ의 ‘않았다’는 의지 부정, ㄱ의 ‘못’과 ㄴ의 ‘못했다’는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③ ㄷ은 청유형 문장이므로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 대신 ‘말다’ 부정문이 사용된다.
 ④ ㄹ의 ‘모르다’와 ㅁ의 ‘좋다’는 짧은 부정에 한하여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
 ⑤ ㅁ의 ‘좋다’와 달리 ㅂ의 ‘좁다’는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문 법 요 소

[26-27] 다음 <대화>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A: 중세 국어에서는 ‘죽다’가 ‘죽었다’의 의미로 쓰였대. ‘-었-’이 쓰이지 않았는데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니?

B: 그렇게 그러면 중세 국어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거지?

A: 글썄,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시제를 나타내었다. 중세 국어의 시상 체계는 어말 어미 ‘-ㄴ-’, ‘-더-’, ‘-ᄀ-’ 그리고 ‘-리-’에 의해 실현되는데, 동사의 경우 ‘-더-’나 ‘-ᄀ-’가 과거를, ‘-ㄴ-’가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다. 형용사의 경우는 ‘-더-’과 과거를, ‘-ᄀ-’가 현재를 나타냈으며, 미래 시제는 동사와 형사 모두 어간에 ‘-리-’가 결합하여 실현되었다. 예컨대 중세 국어에서 동사 ‘흐다’는 ‘하었다’로, ‘흐느다’는 ‘한다’로, ‘흐리라’는 ‘하겠다’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러한 시상 체계에 변화가 발생한다. 근대 국어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새로 등장하였다. ‘-았/었-’은 ‘-더-’나 ‘-ᄀ-’와 마찬가지로 동사와 합하였는데, 전기 근대 국어에서는 ‘-았/었-’, ‘-더-’, ‘-ᄀ-’의 세 선어말 어미 모두가 사용되었으나, 후기 근대 국어에 이르러는 동사의 경우 ‘-았/었-’, 형용사의 경우 ‘-더-’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정착한다. ‘-았/었-’은 ‘-았/었-’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현대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쓰이고 있다.

동사에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ㄴ-’는, 근대국어에 이르러 그 형태가 모음 뒤에서는 ‘-ㄴ-’, 자음 뒤에서 ‘-는-’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 근대 국어 시기에서는 ‘-ㄴ-’, ‘-ㄴ-’, ‘-는-’이 모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후기 근대 국어 시기로 접어들면서 ‘-ㄴ-’과 ‘-는-’의 쓰임은 ‘-ㄴ-’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는 동사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과 ‘-는-’이 쓰이게 되었다. 한편 형용사의 경우, 근대 국어 시기에서도 여전히 ‘-ᄀ-’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어 현대 국어까지 그 형태가 쓰이고 있다.

미래 시제의 경우, 근대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겠-’이 새로이 등장했다. ‘-겠-’의 등장으로 근대 국어 시기에 ‘-리-’와 ‘-겠-’은 용언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함께 쓰였으며, 현대 국어까지 경쟁을 이어 왔다. 그 결과 현대 국어에서 미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표현되고, ‘-리-’는 일부 문어체의 문장에서 한정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 ‘-ᄀ-’는 생략된 형태인 영(제로) 형태를 나타냄.

26.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에는 선어말 어미가 생략된 형태로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군.
- ②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는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그 사용 빈도가 더 높았군.
- ③ 후기 근대 국어에 이르면 용언과 결합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와 ‘-Ø-’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군.
- ④ 현대 국어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ㄴ-’과 ‘-는-’이 쓰이는 것은 근대 국어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군.
- 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달리 동사와 형용사 모두에서 사용되는군.

27. 위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 시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용언의 활용 형태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3점]

		중세국어			근대국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①	적다 (작다)	적더라	적다	적리라	적었다	적는다	적겠다
②	꺾다 (꺾다)	꺾더라	꺾는다	꺾리라	꺾었다	꺾는다	꺾겠다
③	녀다 (가다)	녀더라	녀다	녀리라	녀다	녀는다	녀리라
④	븍다 (븍다)	븍다	븍는다	븍리라	븍었다	븍는다	븍겠다
⑤	넙다 (입다)	넙다	넙는다	넙겠다	넙더라	넙다	넙겠다

정답 및 해설

- 1) **답 ① [높임 표현 파악]** ‘꺼냈어요’는 해요체의 의문형에 해당되고, ‘시작할까’는 해체의 의문형에 해당한다. 비격식체만 쓰인 사례이다. **오 ②** ‘했어’는 해체의 의문형이고, ‘앞게’는 하계체의 명령형이다.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한 예에 해당한다. **③** ‘나갑시다’는 하오체의 청유형이고, ‘늦겠어요’는 해요체의 평서형이다.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한 예에 해당한다. **④** ‘앉았니’는 해라체의 의문형이고, ‘자’는 해체의 명령형이다.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한 예에 해당한다. **⑤** ‘좋습니다’는 하십시오체의 평서형이고, ‘다녀오셨어요’는 해요체의 의문형이다.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한 예에 해당한다.
- 2) **답 ③ [높임 표현 파악]** ‘높습니다’를 ‘높으십니다’로 수정하는 것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ㄷ의 주어는 ‘이율이’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잘못된 수정이다. **오 ①** ‘주무시다’는 ‘자다’의 높임 표현으로 주체 높임을 실현한다. **②** 직접 높임에는 ‘계시다’를 사용하고 간접 높임에는 ‘있으시다’를 사용한다. **④** 선생님은 객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쭙어 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과장님은 객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보기’가 아니라 ‘뵈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답 ③ [시간 표현 파악]** 동사의 경우 ‘-(으)ㄴ’과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시하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으)ㄴ’과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ㄴ의 ‘느릿한’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형용사는 ‘-던’과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오 ①** ‘보았다’와 ‘되었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어제’와 ‘지난주에’는 이 문장이 과거 시제임을 알려 주는 시간 부사어이다. **④** ‘어렸을 때 심하게 아팠었다.’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았었-’은 과거의 사태를 표현하되, 아팠다는 과거 사태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너 지난주에 보니까 어딘가 바쁘게 가더라.’라는 문장은 화자가 과거에 직접 관찰한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ㄴ을 통해 ‘-던-’의 기능을 과거에 직접 관찰한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도출한 것은 적절하다.
- 4) **답 ① [시간 표현 파악]** 사내가 말을 타고 있는 행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말을 타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 ②** ‘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다.’의 경우 마시는 행위가 계속되는 진행상으로만 해석이 되고, 완료상으로는 해석되기 어렵다. **③** ‘용재가 빵을 먹고 있다.’의 경우 빵을 먹는 행위가 계속되는 진행상으로만 해석이 되고, 완료상으로는 해석되기 어렵다. **④** ‘세희가 책을 읽고 있다.’의 경우 책을 읽는 행위가 계속되는 진행상으로만 해석이 되고, 완료상으로는 해석되기 어렵다. **⑤** ‘동생이 세수를 하고 있다.’의 경우 세수를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진행상으로만 해석이 되고, 완료상으로는 해석되기 어렵다.
- 5) **답 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 ‘-습-’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고, ‘-슬-’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다. 따라서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 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을 높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②**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모시다, 뵈다, 여쭙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③** (가)의 ‘보스븍면’과 (다)의 ‘보스븍’은 각각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 ‘뵈면, 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듣즈븍면’은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 없다. **④** 자료에 주어진 예문을 보면 용언의 연결형과 관형사형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활용형에서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답 ④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어간 ‘듭-’은 ‘ㅂ’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으니’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슬-’이 와야 하고, 활용형은 ‘듭스븍니’가 되어야 한다. **오 ①** 어간 ‘듭-’은 ‘ㄷ’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도 ‘듭습고’가 되는 것이 옳다. **②** 어간 ‘츠-’는 ‘ㅈ’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도 ‘츠습고’가 되는 것이 옳다. ‘츠다’는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 매거나 끼워서 지니다.’라는 뜻이다. **③** 어간 ‘얼-’은 ‘ㄷ’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아’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슬-’이 오고, 활용형도 ‘얼스븍’이 되는 것이 옳다. **⑤** 어간 ‘막-’은 ‘ㄱ’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거늘’은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은 ‘막습거늘’이 되는 것이 옳다.
- 7) **답 ⑤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㉞은 타동사 ‘뜯다’에 피동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피동사 ‘뜯기다’를 파생한 예이다. **오 ①** ㉝은 타동사 ‘썰다’에 피동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피동사 ‘썰이다’를 파생한 예이다. **②** ㉞은 형용사 ‘좁다’에 사동사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사동사 ‘좁히다’를 파생한 예이다. **③** ㉞은 형용사 ‘높다’에 사동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사동사 ‘높이다’를 파생한 예이다. **④** ㉞은 자동사 ‘놀다’에 사동사 파생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사동사 ‘놀리다’를 파생한 예이다.
- 8) **답 ③ [주동문과 사동문의 특징 파악]** ‘아기가 우유를 먹는다.’의 ‘먹다’는 타동사인 데,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에서 ‘먹이다’와 같은 사동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타동사는 사동사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은 잘못이다. **오 ①**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꾼 모든 문장에서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주동문의 주어였던 '길이', '아기가', '아이가', '차가'는 사동문에서 '길을', '아기를', '아이에게', '차를'과 같이 목적어나 부사어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아이가 우유를 마신다.'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마시게 한다.'와 같이 '-게 하다'를 통해 사동문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마시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기 때문이다. ⑤ '정지하다'를 사동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 '정지시키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9) **㉠ ④ [능동문과 피동문의 성격 파악]** '내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상황은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에 해당한다. 또한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바둑을 배웠다.'에서 바둑을 배운 것은 동작이라기보다는 경험에 해당한다. 대응하는 피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에 해당한다. **㉡ ①** '더위가 한풀 꺾였다.'에서 '꺾이다'는 피동사이지만, 자연적 변화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반면 '희태가 잠자리를 잡았다.'는 '잠자리가 희태에게 잡혔다.'와 같이 대응하는 피동문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물쇠가 누군가에게 뜯겼다.'는 '누군가가 자물쇠를 뜯었다.'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그쪽 자리를 잘 알았다.'에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경험에 해당하므로 대응하는 피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문장은 ㉡에 해당한다. ③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는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었다.'는 '닭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와 같이 피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아이가 모기에게 잔뜩 물렸다.'는 '모기가 아이를 잔뜩 물었다.'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우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도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건우에게 들렸다.'와 같이 대응하는 피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 ② [부정 표현 파악]** ㉠에서 '않다'가 쓰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에서 '않다'가 쓰인 '여름인데 날씨가 덥지 않다.'는 특정한 상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기도 한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 ①** ㉠에는 '안, 못'과 같이 부정 부사를 이용한 부정문과 '않다, 못하다'와 같이 부정을 의미하는 용언을 통해 이루어진 부정문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③ ㉡에서는 비가 오는 상황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는 것이므로 '-지 못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 그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옳은 진술이다. ④ ㉡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않으십시오, 앉읍시다, 못하십시오, 못합시다'가 아니라 '마십시오, 마시다'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옳은 진술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못 행복하다'는 비문인 것으로 보아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못'과 어울리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 ① [높임 표현 파악]** 이 문제는 문장에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세 종류의 높임 표현에서 쓰이는 문법 형태소 및 특수 어휘를 찾을 것 / ㄱ : 주체인 '형'은 '-시-'로 높이지 않았다. '-다'를 썼으므로 상대를 높이지 않았다. '아버지께'와 '드리다'를 썼으므로 객체를 높이고 있다. ㄴ : 주체인 '형'은 '-시-'로 높이지 않았다. '-습니다'를 썼으므로 상대를 높이고 있다. '아버지께'와 '드리다'를 썼으므로 객체를 높이고 있다. ㄷ : 주체인 '할머니'는 '-시-'로 높이고 있다. '-다'를 썼으므로 상대를 높이지 않았다. '형에게'와 '주다'를 썼으므로 객체를 높이지 않았다. ㄹ : 주체인 '아버지'는 '-시-'로 높이고 있다. '-습니다'를 썼으므로 상대를 높이고 있다. '형에게'와 '주다'를 썼으므로 객체를 높이지 않았다. ㅁ : 주체인 '아버지'는 '-시-'로 높이고 있다. '-다'를 썼으므로 상대를 높이지 않았다. '할머니께'와 '드리다'를 썼으므로 객체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12) **㉠ ④** ㉠에서는 '있다'에 '-(으)시' : 주체 높임선어말어미'가 붙어 높임을 실현한 것이나, ㄴ은 '드리다'의 높임 어휘인 '모시다'에 의해 높임의 표현이 만들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13) **㉠ ④** ㉠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고 있으며, ㉡은 '모시고'라는 특수 동사를 사용하여 동작의 대상(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 ㉢은 '교장 선생님'과 듣는 이를 동시에 높이고 있으며, ㉣은 행위의 주체인 '외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④이다.

14) **㉠ ③** ㄴ의 '친구분'은 이 문장에서 주체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객체는 '할아버지'이고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뵙다'를 사용한 것이다. **㉡ ①** '여쭙다'는 '묻다'의 높임말이다. ② '에게'보다 '께'가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이 문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체인 화자가 찾아가 어떤 사람이다. 대화 상황이어서 생략된 경우이지만 '묻다' 대신 '여쭙다'를 사용하였으므로 높임의 대상임은 명백하다. ⑤ '뵙다'도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옵-'이 붙으면 더욱 공손한 표현이 된다.

15) **㉠ ② [높임 표현 파악]** 이 문제는 문법 요소로서의 높임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높임 표현을 언어 예절에 맞게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종결 어미들을 확인하여야 함. / '-습니다'는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어미, '어요'는 해요체의 명령형어미, '-다'는 해라체의 평서형 어미, '-어'는 해체의 평서형 어미이다. 해체와 해요체가 비격식체이고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격식체이다. 그러므로 ②는 '㉠, ㉢은 격식체이고 ㉡, ㉣은 비격식체이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이고 '께서'는 주체 높임의 조사이다. 주체 높임 조사는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여기에서는 쓰이고 있다.



문 법 요 소

③ ㉔에서 '순희'를 '할머니'로 바꾸면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주다'대신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드리다'로 바꿔야 한다. 조사 '에게'도 '께'로 바꿀 수 있다. ④ ㉔에서는 '데리고' 대신 특수 어휘 '모시고'를 써서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였고 ㉔에서는 '만나고' 혹은 '보고' 대신 특수 어휘 '뵙고'를 써서 객체인 '담임 선생님'을 높였다. ⑤ 상대 높임 표현은 원칙적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고 ㉑~㉔은 모두 종결 어미로 끝났으므로 상대 높임 표현이 모두 실현되었다.

16) ㉑ ① [높임 표현의 파악] ㉑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㉔과 동일하다. 그러나 ㉑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난 객체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㉔과 다르다. ㉒ ㉓의 '께서', ㉔의 '-시-'는 모두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㉓의 '께서'는 주체 높임을, ㉔의 '께'는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④ ㉔의 '께'는 조사를 통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㉔은 특수 어휘를 통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㉑과 ㉔은 '해체'로 청자를 높이는 정도가 동일하다.

17) ㉑ ② [시간 표현 파악] ㉑ 그는 어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보기>의 조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해야 한다. ㉒에서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다. ㉓ ㉑ 나는 집에서 지금 밥을 먹는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㉒ 그녀는 충치를 다 뽑아 버렸다.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㉓ 나는 내일 빵을 먹어 버리겠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㉔ 그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18) ㉑ ⑤ [시제 표현 파악] '-겠-'이 의지나 의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제가 반드시 미래여야 함을 유의할 것 / ㉒은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므로 화자(1인칭 주어)의 의지, 의도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㉓ ㉑ 평서문의 주어가 1인칭일 때 의지, 의도의 뜻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추측, 추정의 뜻으로도 해석된다. <보기>에서 추측, 추정의 뜻은 인칭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㉒ 평서문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닐 때에는 의지, 의도의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 ㉓ 의문문의 주어가 2인칭이 아닐 때에는 추측, 추정의 뜻으로만 해석된다. 이는 ㉒의 설명을 의문문에 대한 것으로 바꾼 것이다. 곧 평서문의 1인칭 주어는 의문문의 2인칭 주어이고 의지, 의도의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은 추측, 추정의 뜻으로만 해석된다는 것이다. ㉔ 의문문의 주어가 2인칭이면 의지, 의도뿐 아니라 추측, 추정의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㉑의 설명을 의문문에 대한 것으로 바꾼 것이다. 곧 평서문의 1인칭 주어는 의문문의 2인칭 주어이므로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19) ㉑ ② [시제 표현 파악] 이 문제는 <보기>의 배경지식을 읽고 시간 표현이 단순히 발화시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이해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밑줄 친 말과 문장 끝의 서술어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선후를 따져야 함. / '보면서'는 발화시(말하는 현재 시점)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지만 '들고 있었다'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일이다. ㉒ ㉑ '아름다운'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이나 '졌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이다. ㉒ '웃는'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이고 '맞는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이다. ㉓ '숙제하는'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이나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이다. ㉔ '붉은'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이고 '바라본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이다.

20) ㉑ ③ [시제 표현의 파악] ㉒에 사용된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먹었겠구나'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㉓ ㉑ '내일'이 미래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ㄴ-'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㉒ ㉒에서 '-었-'은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㉓ ㉒에서 '-었었-'은 손님들이 장사진을 찾던 과거의 일이 손님이 없는 현재 상황과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과 '보았다'는 모두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21) ㉑ ⑤ [어미의 이해] ㉒를 기준으로 볼 때, ㉑, ㉓, ㉔가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의 중의성을 드러내는 문장이고, ㉒를 기준으로 볼 때, ㉓, ㉔가 '상태의 지속'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㉒를 기준으로 볼 때, ㉑, ㉔, ㉔가 '동작의 진행'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㉔이다.

22) ㉑ ③ [피동문의 특성 파악] ㉑ ㉒, ㉓으로 보아,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모두 '에게'의 형태로 바뀌는군.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변하는데, 동사에 따라 '에', '에게', '에 의해' 중의 하나로 바뀐다. ㉓ ㉑ ㉒으로 보아, 접사를 활용한 피동문과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도 있군. ㉒에서 B는 접사 '-리-'를 활용한 피동문의 예이고 C는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의 예이다. ㉓ ㉑, ㉓으로 보아, 피동문은 능동문과 달리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군. ㉑, ㉓에서 능동문은 모두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를 서술어로 취하지만, 피동문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자동사를 서술어로 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㉔ ㉒으로 보아, 능동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군. ㉔의 '들었다'의 경우, '칭찬이 들었다.'처럼 관용적인 표현은 존재하지만, '*칭찬이 철이에게 들었다.'처럼 문법적으로 피동문을 구성하면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문장이 된다. ㉓ ㉒로 보아,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군. ㉔'열매가 열리다.'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문장이다.

23) ㉠ ① [부정 표현 파악] ‘안’이나 ‘않다’가 쓰인 부분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함. / ‘아프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는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부정한다. ‘나는 걱정 안할 테니’에서 의지 부정의 뜻이 드러난다. ㉡ ②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라/*안 해라 }.’에서 짧은 부정 ‘안 해라’는 비문법적이고, 긴 부정 ‘하지 마라’는 문법적이다. ③ ‘별로 {*어려운/어렵지 않은 } 문제’에서 ‘별로’는 부정 표현 ‘어렵지 않은’과만 어울림을 알 수 있다. ④ ‘걱정할 필요 없다’에서 ‘필요 있다’의 부정 표현으로 ‘필요 있지 않다’가 아닌 ‘필요 없다’를 쓴다. ‘없다’는 ‘있다’의 어휘적 부정 표현이다. ⑤ ‘아프지 않다’와 ‘돕지 않는다’에서는 똑같은 현재 시제인데 앞의 것은 ‘-다’로 끝나고 뒤의 것은 ‘-는다’로 끝난다. 앞의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이고 뒤의 것은 동사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각각 ‘아프다’, ‘돕다’의 품사와 일치하는 것이다.

24) ㉢ ③ [부정 표현의 파악] (라)의 ‘못하다’는 화자의 기대에 못 미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기대 수준이 낮았음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가)와 ‘건물이 크지 않다.’의 ‘않다’는 모두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② (나)는 의지 부정, (다)는 능력 부정으로 볼 수 있다. ④ ‘안 운동했다’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통해 짧은 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지 말다’형태의 긴 부정문이 사용된다. (바)를 통해 청유문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25) ㉣ ④ [부정 표현 파악] ㄹ에서 ‘안 모르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모르지 않다’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ㄹ에서 ‘못 좋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안 좋다’,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ㄹ의 ‘모르다’와 ㄹ의 ‘좋다’는 긴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짧은 부정과 긴 부정 |ㄴ의 ‘안 갔다’와 ‘못 갔다’는 짧은 부정 표현이고, ㄴ의 ‘일어나지 않았다’와 ‘일어나지 못했다’는 긴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②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므로 ㄴ의 ‘안’과 ㄴ의 ‘않았다’는 의지 부정, ㄴ의 ‘못’과 ㄴ의 ‘못했다’는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③ |청유형에 사용되는 ‘말다’ 부정문 |ㄷ은 청유형 문장이므로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고, ‘가지 말자’와 같이 ‘말다’ 부정문만 사용할 수 있다. ⑤ |‘못’ 부정문 |ㄹ의 ‘좋다’는 ‘좋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ㄹ의 ‘좁다’는 ‘못좁다’, ‘좁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26) ㉤ ③ [국어사, 선어말 어미의 이해] 후기 근대 국어에서는 동사의 경우 ‘-앗/엇-’이, 형용사의 경우 ‘-더-’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다. ‘-더-’와 ‘-Ø-’가 더 이상 쓰이지 않은 것은 동사에만 해당한다.

27) ㉥ ② [국어사, 선어말 어미의 이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시제 선어말 어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현재	미래
중세 국어	동사	‘-더-’ ‘-Ø-’	‘-느-’	‘-리-’
	형용사	‘-더-’	‘-Ø-’	‘-리-’
근대 국어	동사	‘-앗/엇-’ ‘-더-’ ‘-Ø-’	‘-느-’ ‘-ㄴ-’ ‘-는-’	‘-리-’ ‘-겟-’
	형용사	‘-더-’	‘-Ø-’	‘-리-’ ‘-겟-’

이에 따라 동사 ‘졌다’, ‘녀다’, ‘넉다’와 형용사 ‘적다’, ‘붉다’를 구분하면 된다.